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인간의 비애의 시작



저자: Edward Hughes

삽화: Byron Unger; Lazarus

각색: M. Maillot; Tammy S.

번역: Eun Ji Shim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2007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는 그의 아내 이브와 에덴의 동산에 살  
았다. 그들은 그날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며 완전한  
행복을 누렸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무 열매 중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적 있니?” 뱀이 이브에게 물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어.” 그녀는 대답했다 “만약 우리가 그 과일을 먹거나 만지면 우리는 죽고 말 거야.” 뱀은 히죽히죽 웃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꺼야.” 이브는  
그 나무의 과일을 원  
했다. 그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과일을  
먹었다.



이브가 하나님께 불복종 한 뒤 그녀는 아담을 데려와 그 과일을 먹게 했다. 아담은 "안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지 않을 꺼야." 라고 진작 말했어야 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 둘 다 그들이 알몸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몸을 가렸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숲에 몸을 숨겼다.



서늘한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동산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무엇을 했는지 아셨다. 아담은 이브를 비난하였다. 이브는 뱀을 비난했다. 하나님께서는 “뱀은 저주를 받았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담아,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저주를 받았다. 너는 너의 매일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은 생명을 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불타는 검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위해 가죽옷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가죽을 가지고 오셨을까?



세월이 흘러 아담과 이브에게 가족이 태어났다. 그들의 첫 번째 아들, 카인은 농부였다. 그들의 두 번째 아들, 아벨은 양치기였다. 어느 날 카인은 하나님께 야채를 선물로 드렸다. 아벨은 그의 가장 좋은 양을 선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선물에 만족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카인의 선물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카인은 화가 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 네가 옳게 행하였다면 내가 왜 너의 선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카인은 화가 풀리지 않았다. 얼마 후 들판에서 그는 아벨을 공격하여 그를 죽였다.



하나님은 카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카인은 거짓말을 했다. "제가 제 아우 를 지키는 자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농사짓는 능력을 가져가시 고 그를 방랑자로 만드는 것으로 카인을 처벌하셨습니다.



카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그는 아담과 이브의 딸 중 하나와 결혼했다. 그들은 한 가족을 이루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인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증손들이 그가 세운 도시를 채웠다.



한편, 아담과 이브의 가족은 빠르게 늘어났다.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더 오래 살았었다.





그녀의 아들 세스가 태어났을 때, 이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벨을 대신하기 위해 세스를 주셨어.” 라고 말했다. 세스는 912년을 살고 많은 아이들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사악해  
져 갔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새들도  
멸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이 후회스러우셨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 사람은 노아였다. 세스의 후손, 노아는 강직하고 결백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의 세 아들들을 가르쳤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상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노아를 이용하기로 계획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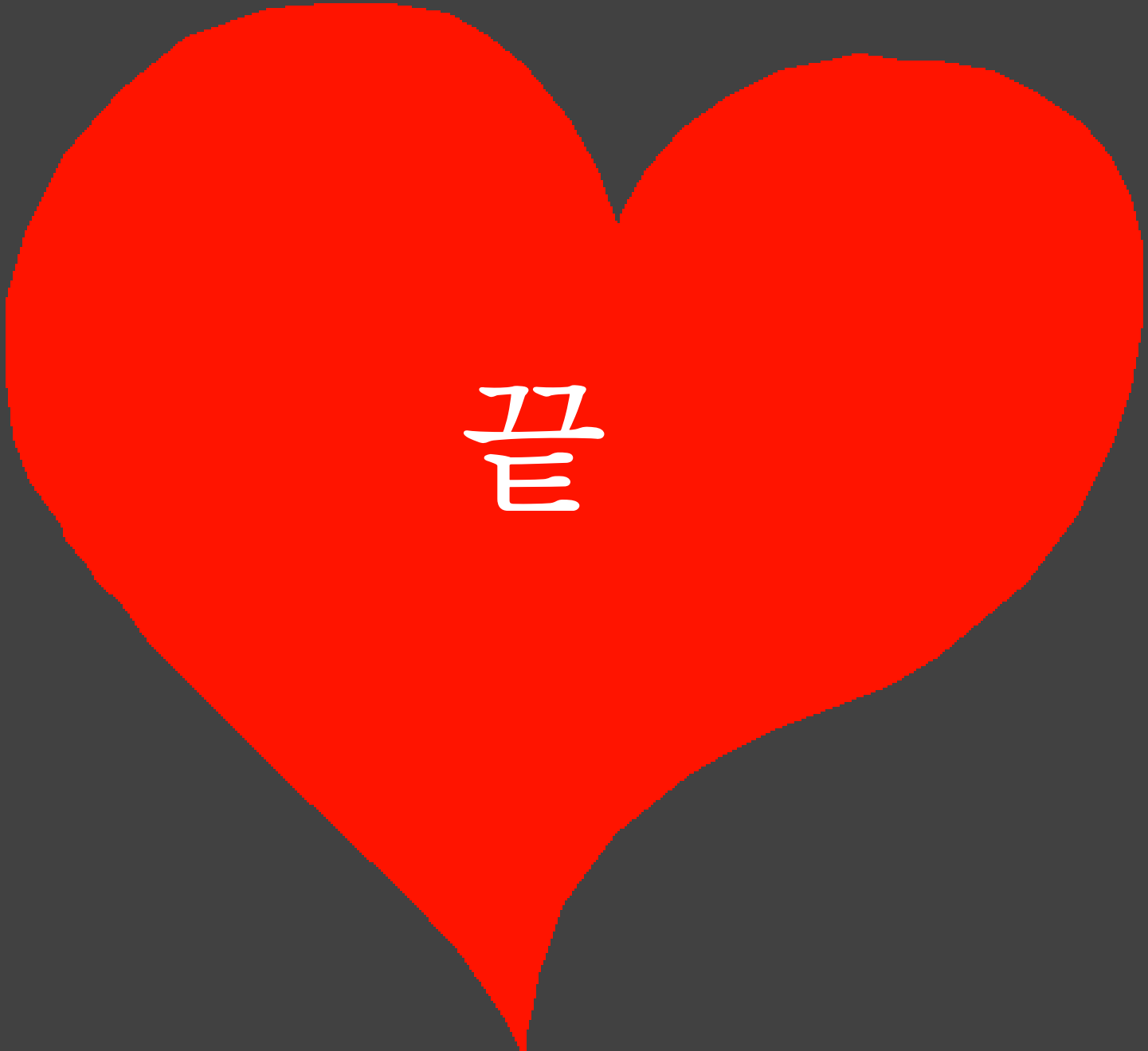
인간의 비애의 시작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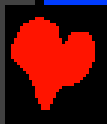
성경 창세기 3-6장에 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